

주임신부: 김대하(사도 요한)
본당회장: 조우호(바오로)
TEL : (905) 545-3004
FAX : (905) 545-7895

연중 시기

예수님께서는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신다. (마르코 7, 37)

미사 시간

미 사	주일 11:30(본당)
	주일 17:30(공소)
평 일	매주 (화) 20:00
	매월 첫 (목) 19:00
성모 신심	매월 첫 (토) 11:00
성시간	매월 첫 (목) 19:30

성사 일정


고해성사	미사 전, 후
견진성사	2 년에 1 회
유아세례	매월 마지막 주일
혼인성사	6 개월 전 면담
병자성사	병환 중/임종 전

교리 시간

예비자 교리	온 라인
견진 교리	

신심 단체

자비의 모후 Cu	매월 2 주 미사 후
셋별 Pr.	매주 주일 10 시
평화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8:30
천상의 어머니 Pr.	매주 화요일 11:00
사랑하올 어머니 Pr.	매주 화요일 18:50
바뇌 성모 기도회	매월 1,3 주 (토) 10:00
울뜨레아	매월 1 주(목) 성시간 후



ONE HEART, ONE SOUL
A Campaign for the Diocese of Hamilton

현 참여 가구 수: 45가구 (지난 주 누계: 45가구)
총 약정액: \$110,000 현 모금액: \$86,409 (78.5%)

One Heart One Soul 은 교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교구 사이트 (<https://www.onehearttonesoul.ca/give>) 참조 바랍니다.
※주소 변경및 신용카드 변동 사항은 김성수(베드로) 형제에게 문의 바랍니다.

본당 소식

◎전례 안내
▶9/8(일) 연중 제 23 주일 (본당 11:30, 공소 17:30)
▶9/10(화) 평일미사 없음 – 온주 사제단 연수 -
▶9/15(일) 한가위 미사 (본당 11:30, 공소 17:30)

◎온주 한인 사제단 연수
▶9/9(월) ~ 9/11(수)
본당 신부님께서 온주 한인 사제단 연수 참여 관계로 이번 주 화요일 평일미사는 없습니다.

◎한가위 위령 미사 예물 봉헌
9/15(일)은 한가위 미사로 봉헌합니다.
한가위 위령 미사 예물은 미리 미리 전례부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위 미사 후 성모회에서 친교를 위한 식사를 제공합니다.

◎은빛 대학: 매달 첫 주 친교 식사 후 친교실에서 시행합니다.

◎ 평일 미사 변경
금요일 평일 미사는 목요일 19:00 로 옮겨집니다. 성시간 또한 목요일 평일 미사 중에 진행됩니다.

◎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 사랑으로 봉사 해 주실 선생님을 찾습니다.
문의: 박혜영 수산나

◎2024-2025 주일학교 안내
신청서는 성당 정문앞 테이블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강예정일: 9 월 15 일
대상: 유치부 - 6 학년 문의: 박혜영 수산나
※다음 주 부터 **입구 쪽 마지막 줄은**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 해밀톤 성 유대철 본당 30 주년 축하 골프대회
▶접수 **9/22(일)** 까지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및 장소: **9/28(토)** 12:00 South Brook GC
문의: 행사본과장 김한욱 에릭

공소 소식
▶ St.Mary 성당 Randy 신부님 사제서품 40 주년 (이찬희 이나시오 사목회장 축하 사절로 참석)
*이정순 요세피나 자매님 꽃 다발 도네이션 감사합니다.
▶9/15 (일) – 한가위 미사 (성모회 특식 제공)
▶금일 간식은 이민성 세실리아 자매님 준비해주셨습니다. 감사히 잘먹겠습니다
▶ 축하합니다. 9 월 공소 신자 축일자 (9/1) 남클린턴 프란치스코 (9/29) 진영천 미카엘

단체 소식
▶본당 울뜨레아 모임 변경
9 월 본당 울뜨레아는 **9/12(목) 19:00** 친교실입니다.
10 월부터는 첫 주 금요일에서 첫 주 목요일로 옮겨집니다.

▶꾸리아 화합: 9/15(일) 13:30 하상실

구역소식
1 구역 9/21 토 11:00 대철실
2 구역 9/21 토 13:00 신용두 세바스찬 형제님 맥
3 구역 9/21 토 12:00 하상실
4 구역 9/14 토 18:00 김성수 베드로 형제님 맥
5 구역 9/22 일 13:30 친교실
6 구역 9/14 토 18:00 이승익 다니엘 형제님 맥
7 구역 9/21 토 17:30 박신준 비오 형제님 맥

친교 식사
9/ 8: 3 구역(비빔밥 \$5/\$3)
9/15: 성모회(추석) 9/22: 4 구역 9/29: 6 구역

우리들의 정성

지난 주 정성 (미사 참례자: 120 명)			
주일헌금	\$1205	교무금	\$1585
감사헌금	\$0	성전건립	\$50

감사합니다.

도네이션 – 주일학교 \$100 (신신배 쟈마)
주일학교/복사단 단합대회 \$100(익명)

삼종기도

○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성모송>
○ “주님의 종이오니
●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성모송>
○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성모송>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十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웸으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수난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9 월 본당 세례 축일자 (44 명)

9/ 3 그레고리오(박기형, 김준홍), 그레고리아(김정혜)
9/ 4 모니카(이경구)
9/ 5 데레사(김지혜, 이순복, 민연환, 권민아)
제노(이준우)
9/ 7 레지나(황미옥, 이나라)
9/ 8 아델라(정세빈), 마리아(홍미경)
9/17 힐데가르트(이은영)
9/18 소피아(소성희), 리카르다(송지은)
9/21 마태오(정현기, 권재성, 정원규)
9/23 비오(박신준) 9/26 유스티나(홍유나)
9/29 미카엘라, (정나현, 조정순,이병예, 김재원, 박아인)
미카엘(윤성희, 강호경, 홍민준, 김세현, 손정일, 유준, 정상현, 이영섭)
라파엘라(정가현, 양남숙,김지원, 박해인)
라파엘(양향남, 유세진)
가브리엘라(박재인, 한성원), 가브리엘(최임환)

전례봉사자

날짜	해설	복사	독서자	봉헌자
9/ 8	임연신 비아	송 찬 아론 이준서 사도요한	1 독서: 김성수 베드로 2 독서: 이재순 데레사	김한욱 에릭 채정희 올리비아
9/15	신낙홍 마리아	유세진 라파엘 최다혜 플로라	1 독서: 이은영 힐데가르트 2 독서: 강지원 요안나	김성수 베드로 이재순 데레사
9/22	김성수 베드로	최다인 안나 이준규 안드레아	1 독서: 이인선 켄마 2 독서: 박규혜 카타리나	이운영 힐데가르트 강지원 요안나

사랑해(海)

박종주 베드로 신부
남천 성당 주임

어느 신부님께서 미사 강론 시간에 신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신자들이 한참 고민하자, 신부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 바다는 바로 썰렁해(海)입니다. 신부님께서 다시 질문하셨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어디일까요? 신자들이 고개를 갸웃하며 답을 찾으려 애쓰자 신부님께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 바다는 바로 사랑해(海)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부님께서는 모두의 마음이 항상 따뜻한 사랑의 바다 같기를 바란다고 강론을 마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한 자매님이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 집에 돌아가 남편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남편이 고민하며 답을 하지 못하자, 자매님은 애교 섞인 목소리로 이럴 때 당신이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잖아요. 라고 했지요. 남편은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그만 고마해라고 외쳤답니다. 자매님이 진정으로 듣고 싶었던 말은 사랑해였는데 말이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기 말을 잘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자식이, 부부는 서로가, 친구나 동료들은 각자가 자신의 말을 잘 들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의 말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지위나 재물 같은 외적인 요소를 활용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런 방식은 결국 사람들 간의 소통을 어렵게 만들고 상대방의 말을 더 듣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귀먹고 말 더듬는 이(마르 7,32)를 치유해 주십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신체적인 치유를 넘어,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귀먹음과 말 더듬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치유를 받아야 할 귀먹은 이들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과대평가하며 다른 사람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으려 하거나, 자기도취에 빠져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섬기는 사람이 되어 모든 이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기는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그들이 기뻐할 일을 하며, 그들의 필요를 이해하고 돕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러한 섬김의 삶을 통해, 우리는 서로의 말을 더욱잘 듣고,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며 모든 이의 종이 되신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광야에서는 물이 터져 나오고 사막에서는 냇물이 흐르리라.(이사 35,6)는 제1독서의 말씀처럼 날이 새로워지는 삶이며 영적 세계에 눈을 뜨는 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를 섬기고, 기쁨을 나누며, 마음을 열어 서로 이해할 때,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 고마해가 아니라 사랑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 철 주 보

<http://cafe.daum.net/stpeteryu>

환대와 경청의 해
2024 사목지침

St. Peter Yu Catholic Church/ 6 Heath St. Hamilton ON L8H 3Y5



연중 23 주일

(2024. 9. 8)

제 1 독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35,4-7 ㄴ
화답송 시편 146(145),6 ㄴ-7.8-9 ㄴ.9 ㄴㄴ-10 ㄴㄴ(◎ 1 ㄴ)



후렴.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 주시며,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 주시네. ◎
○ 주님은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네. ◎
○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꺾어 버리시네.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 시온아, 네 하느님이 대대로 다스리신다. ◎
제 2 독서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2,1-5
복음 환호송 마태 4,23 참조
◎ 알렐루야.
○ 예수님은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자들을 모두 고쳐 주셨네.◎알렐루야
복 음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7.31-37